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 어디일까?

보리수아래, 전국 사찰 대상 연구조사 실시

후보군 80여 사찰 전수조사 후
모범사례로 자료집 발간도 계획
인식개선 위한 교육자료 기대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중증뇌성마비장애를 가진 홍현승 씨는 2005년부터 서울 화계사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현승 씨가 처음 화계사에 방문했을 때 갈수 있었던 곳은 대적광전뿐이었다. 안전난간대(핸들바)가 설치된 곳이 그곳뿐이었던 것. 대웅전 참배를 하고 싶었던 현승 씨는 어느 날 만난 주지스님께 가벼운 말로 "대웅전에 난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안 되냐"고 물었다. 얼마 안 돼 나무 조립으로 임시 경사로가 만들어졌고 1년 후, 대웅전뿐 아니라 삼성각에 정식 경사로와 난간이 설치됐다.

난간 덕분에 현승 씨는 화계사에서 신행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화계사 불교학생회와 대학생법회, 불교대학 2년 그리고 학생회 포교사를 거쳐 학생회 간사로 활동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최연소 합격했으며 시집 출간으로 시인이 됐다.

그 세월이 어느덧 17년. 난간 하나로 시작된 불연이 현승 씨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현승 씨는 화계사뿐 아니라 사찰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의 불교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늘 안타깝다.

사회구조가 법률 제정,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조로 바뀜에 따라 사찰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에서 사찰은 편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크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것으로 인식돼 장애인의 불교 접근성을 막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을 갖춘 사찰을 파악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계, 사회복지계, 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알릴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애인 불자단체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진행 중인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 조사연구사업'은 사찰은 장애인이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 시작됐다.

시설을 잘 갖춘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 불자들도 있지만 다수의 장애인 불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해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최명숙 대표는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수년 전부터 연구에 대한 준비를 했다.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실시한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업공모에서 선정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명숙 대표는 "많은 사찰들이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장애인이 전통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법당 참배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등 근래 들어 눈에 띄게 장애인에 대한 환경이 좋아졌다"면서 "그러나 홍보가 돼 있지 않기에 배려가 전무한 것으로 인식돼 장애인의 불교 접근성을 막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이번 사업 진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환경이 좋은 사찰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사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장애인이 사찰을 쉽게 찾아 신심 돈독한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이를 통해 사찰은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포교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보리수아래 회원들은 3월부터 직접 전국 사찰을 방문,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전국 조계종 사찰 80여 곳을 기본으로 하며 타종단의 대표 사찰로도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사로와 안내표지만, 장애인 화장실 등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이 참배할 수 있는 법당 등을 살필 계획이며 취합된 자료는 수필 형식으로 정리, 올해 10월 중순 경 자료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집 500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국 사찰과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자료집이 발간되면 장애인 불자들의 신행뿐 아니라 종단 차원의 포교 전략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명숙 대표는 "이번 조사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모르고 있던 장애인 친화적 면모를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 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사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인식 교육 욕구가 있는 사찰은 교육도 겸할 계획"이라며 사찰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3월 15일 제6기 포교 · 신도연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 활성화 위한 조직 정비

제6기 포교 · 신도연구위원회 새 구성

3월 15일 신임위원 위촉
포교위원장에 지현 스님
신도위원장에 원명 스님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이 3월 15일 포교종책 및 포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교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포교위원회는 각 사찰과의 원할한 소통을 맡고, 현실성 있는 포교종책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6기 위원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위원장으로,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중앙종회의원),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종회 사무처장), 종회 포교분과위원장 법원 스님,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종회의원), 김영석 포교사단장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7명이 위촉됐다.

해당 사찰에서 활발한 포교를 진행중인 스님과 현장활동가, 학계 전문가들이 포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같은 날 신도연구위원도 위촉했다. 신도연구위원회는 신도조직화와 관리 등을 함께 고민하는 조직이다.

신도연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호암 스님(인각사 주지),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스님(종회의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송일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등이 위촉됐다.

범해 스님은 "각 위원들은 종단 포교를 책임진다는 원력으로 포교원과 함께 해주길 바란다. 불교 미래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새로운 포교방안을 수립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교위원장 지현 스님은 "코로나로 포교환경이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 포교방안을 설계해가겠다. 포교는 스님의 의무라 생각하고 책임을 맡은 만큼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위원 호산 스님도 "불교계는 문화를 활용한 포교에 앞장서야 한다. 포교위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포교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맑고향기롭게 대학생 장학금 지원

4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사)맑고향기롭게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수도권 및 지역의 2년제 이상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의 사찰, 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법정 저소득층 및 소득구간 5구간 이하 △직전 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인 학생(학점 4.5 만점의 경우 총 평점 3.5 이상, 학점 4.3 만점의 경우 총 평점 3.3 이상)이다. 선정결과는 5월 17일 본회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장학증서 수여식은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02)741-4696 임은호 기자

동국대에 인재 양성 장학금 기부 잇달아

보은 법주사, 1000만원 쾌척
충북 미래불자 장학기금 활용
월드머시코리아 5000만원 기부



장학증서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기념촬영.

불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이 동국대에 잇달아 쾌척됐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3월 16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주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건학위원회 위원장 돈관 스님, 박기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법인에서는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박광현 교무학생처장과 법주사 장학생 6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8번 째 주자가 된 법주사는 동국대 재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1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혜인원은 지금까지 총 80명으로 늘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을 연계하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장학사업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인연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충북지역 학생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은(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2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법주사와 정도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경은 학생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 따뜻한 나눔의 힘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은 3월 15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만나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현진 스님의 뜻에 따라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국제포교사, 간화선 수행법 배우다

국제포교사회, 3월 12일 각산 스님 초청 법회

'참선명상 여덟 단계' 주제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참선 명상의 여덟 단계'를 주제로 간화선의 수행법이 소개됐으며, 대면 및 비대면 참석자와의 열띤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1월 11일,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과 업무협약을 맺고 참선 수행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행사 지원과 홍보를 맡기로 했으며, 이번 초청법회는 국제포교사 교육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제포교사회 회원 25명은 2월 25일부터 3일간 '세계명상센터 참불선원 49기 명상 입문반'에 참석해 교육을 받았으며, 국제포교사회 회원 24명은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7기 참선아카데미'에서 명상과 참선 교육을 받고 명상지도사 2급 및 참선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